

與, 국감 앞두고 전열 정비...민생·尹 실책 부각 ‘쌍끌이’

오는 6일 시작...한병도 “정정보다 정책”

野 공세 차단·국정과제 성과 홍보 주력

정부 정책 미비점 보완 ‘책임 여당’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주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의 경우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초점을 민생 문제에 우선 맞추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렷뚜렷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국감에 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홍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 과세’ 차원의 대책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우수한 국감 아이템 등을 소개하는 방안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민토17에 출연해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중에도 정말 좋은 것들은 짧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 때의 실책에 따

른 후유증도 부각하면서 야당의 공세에도 맞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이 현재의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겹치는 2022-2024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나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전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도리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며 “이와 비교해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방향이 맞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2024년 북한의 국경하 조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며 “당시 제대로 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사 나누는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허영 의원. /연합뉴스

섬 여객선 기항지 75% ‘터미널 없다’

322곳 중 240곳...전남광주 160곳 67%

서삼석 “전수조사·지원체계 마련 나서야”

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기항지 상당수가 여객터미널은 물론 기본적인 탑승 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기항지의 3곳 중 2곳 이상이 전남광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섬 지역 여객편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2개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0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여객터미널이 없는 기항지는 전남광주가 160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미설치 기항지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경남 88곳, 충남 20곳, 인천 17곳, 전북 10곳, 기타 지역 57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항지의 기본적인 탑승 대기시설도 열악했다. 전체 기항지의 57%는 여객선 탑승 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천여명의 생업

과 일상을 잇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매년 약 1천300만명의 국민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찾고 있지만, 정작 승·하선이 이뤄지는 기항지의 편의시설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섬 지역은 고령 주민이 많은 데다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이나 대기 시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열악한 대기시설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대합실 등 기항지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항지별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기항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위험시설 개선과 대기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농촌·고령층 이용 많은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최근 5년 1만2천339건...피해액 3천200억

환급률 22·23년 19%·21%...올 상반기 11%

문금주 “FDS 고도화·예방체계 확립 총력”

최근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환급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부터 차단, 피해 예방까지 이어지는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는 총 1만2천339건, 피해액은 3천200억원에 달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130억원에서 2023년 214억원, 2024년 643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10월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5년에는 1천79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2022년 약 19%, 2023년 약 21%, 2024년 약 14%, 2025년 약 11%, 2026년 상반기 약 11%에 그쳤다.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환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사후 피해 구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FDS를 통해 612만6천238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11만5천319건을 차단했으며, 예방 금액은 약 1천475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3천200억원)의 약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기능을 넘어 실제 피해를 막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FDS의 탐지 정확도와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농협 계좌를 노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가 1만2천건, 3천200억원을 넘어섰는데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10%대에 불과해 평생 농사지어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에 대한 구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전국 농촌 지역과 고령층이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FDS의 탐지 정확도와 차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